

[기획조사 04-]

**섬유 수입쿼터 폐지에 따른
주요 섬유수출국 대응방안**

2004. 4

통 상 전 략 팀

[목 차]

I. 세계 섬유교역 환경의 변화	1
1. 세계 섬유교역 현황	1
2. 섬유 수입쿼터 폐지	3
II. 주요 섬유수출국의 대응방안	7
1. 중국	7
2. 인도	8
3. 태국	10
4. 홍콩	11
5. 베트남	13
6. 터키	14
7. 필리핀	15
<별 첨> 국별 섬유 수입쿼터 폐지 대처현황	16
1. 중국	16
2. 인도	23
3. 태국	32
4. 홍콩	41
5. 베트남	51
6. 터키	59
7. 필리핀	65

I. 세계 섬유교역 환경의 변화

1. 세계 섬유교역 현황

□ 현재 세계 섬유교역량은 수출 3천6백65억불, 수입 3천8백1억불로 지난 85년에 비해 약 3.5배 늘어난 규모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상품교역이 3.2배 늘어난 것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섬유교역이 확산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임.

<세계 섬유류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1985	1990	1995	2000	2001
수출	101,003	254,743	345,180	375,032	366,555
수입	111,525	288,942	350,343	387,369	380,175

자료원 :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세계 총교역 현황>

(단위 : 십억불)

	1985	1990	1995	2000	2001
수출	1,954	3,449	5,162	6,446	6,196
수입	2,015	3,550	5,279	6,705	6,466

자료원 : WTO

○ 현재 세계 총 교역 중 섬유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임.

□ 세계 최대 섬유수출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중국은 2001년 기준 전체 수출 물량의 15% 가량을 점유

○ 특히 지난 90년대 초 시장개방화 이후 93년에 최초로 세계 섬유수출시장 점유율 10% 돌파

- 최근 중국의 섬유 수출규모는 80년대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

- 세계 섬유수출 2위를 차지하는 홍콩 역시 점유율 10%를 고수하고 있어 중국과 홍콩의 섬유수출 합계는 전 세계 섬유 수출의 1/4을 차지

<세계 주요 섬유수출국>

(단위 : 백만불, %)

	1999		2000		2001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합 계	352,608	100.0	375,032	100.0	366,555	100.0
중 국	44,297	12.6	53,523	14.3	54,464	14.9
홍 콩	34,988	9.9	37,921	10.1	35,864	9.8
이태리	25,943	7.4	25,977	6.9	26,467	7.2
미 국	20,002	5.7	22,818	6.1	20,840	5.7
독 일	21,456	6.1	19,268	5.1	19,120	5.2
한 국	17,344	4.9	18,727	5.0	16,063	4.4
프랑스	13,322	3.8	12,819	3.4	12,220	3.3

주 : 점유율은 전체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

자료원 :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 우리나라는 2001년 기준으로 총 160억불 어치의 섬유를 수출, 세계 섬유 수출 시장의 4.4%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수출규모가 축소되는 추세
- 세계 최대 섬유 수입국은 미국으로서 2001년 기준 전체 21.8%를 수입하여 최대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음.
-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EU의 연간 수입규모 역시 전체 수입의 28%를 차지
- 유럽 최대 시장은 연간 186억불 규모의 섬유제품을 수입하는 독일
- 일본의 섬유제품 연간 수입규모는 약 250억불로 세계 4위 수입시장

<세계 주요 섬유수입국>

(단위 : 백만불, %)

	1999		2000		2001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합 계	364,876	100.0	387,369	100.0	380,175	100.0
미 국	74,088	20.3	84,044	21.7	82,704	21.8
홍 콩	27,863	7.6	30,251	7.8	28,678	7.5
독 일	32,992	9.0	29,714	7.7	28,677	7.5
일 본	22,141	6.1	25,785	6.7	24,987	6.6
영 국	20,238	5.5	20,202	5.2	20,135	5.3
프랑스	19,159	5.3	18,905	4.9	18,595	4.9
중 국	14,108	3.9	16,859	4.4	16,542	4.4

주 : 점유율은 전체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

자료원 :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 세계 섬유교역은 중국 및 홍콩의 수출과 미국과 EU의 수입 구도로 요약

○ 이는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 아시아 개도국의 섬유수출 급증으로 인한 자국 섬유산업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논리 제공

○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과 EU 등은 국별 섬유수입 쿼터제도를 운용하여 섬유교역의 자유화를 제한하여 왔음.

2. 섬유 수입쿼터 폐지

□ 다자간 섬유협정(MFA; Multifibre Arrangement)에 의한 섬유 교역 제한

○ 다자간 섬유협정은 1974년 섬유 수입 선진국들과 섬유 수출 개도국들간에 체결

○ 섬유 수입국이 개도국산 섬유 수입의 급증에 대해 수량제한 가능

- 미국이나 EU 등은 수입 섬유류의 수입량을 해마다 규정하여 국가별로 분배

□ 동 협정은 비차별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GATT에 위배

- GATT에서는 교역 자유화를 위해 수량제한 폐지를 권고
- 일국의 일방적인 수량제한과 국별로 차별되는 무역조치는 GATT의 비차별 원칙(최혜국 대우)에 어긋남.

□ WTO 섬유협정(ATC;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기존 MFA를 대체하는 WTO 섬유협정이 탄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로소 섬유교역이 GATT 체제로 편입되는 발판을 마련
- 동 협정의 주 목적은 섬유류 교역에서 차별적으로 운영되던 수량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임.
 - 수입쿼터 해제 대상 품목은 협정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입국은 각 단계별로 어느 품목을 자유화시킬 것인지는 재량껏 결정

※ 호주, 브루나이, 칠레, 쿠바, 홍콩, 아이슬란드, 마카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9개국은 WTO 체제 출범과 함께 쿼터를 완전 철폐

- 수량제한 철폐 10개년 계획 : 1995~2004
 - 1994.12.31일 기준 모든 섬유 수입쿼터는 동 협정의 대상이 됨.
 - 1995년~2004년간 모든 섬유 수입쿼터는 점진적으로 철폐
 - 2005.1.1일부로 섬유 교역 자유화 → 섬유류 교역의 GATT 체제 복귀 → WTO 섬유협정 종료 (협정 연장 불가)

<WTO 섬유협정에 의한 섬유 수입쿼터 폐지 일정>

	GATT로 복귀되는 생산품 비율 (쿼터 제거 포함)
1단계 (1995.1.1~1997.12.31)	16% (16%)
2단계 (1998.1.1~2001.12.31)	17% (33%)
3단계 (2002.1.1~2004.12.31)	18% (51%)
4단계 (2005.1.1~)	49% (100%)

주 : ()안은 누적기준

자료원 : WTO

- ☐ 2004년까지 이루어지는 3단계 수입쿼터 철폐 대상 품목에는 반드시 섬유의류 제품의 4대 주요 품목(tops and yarns, fabrics, made-up textile products, clothing)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특별잠정세이프가드(Special Transitional Safeguard) 발동 가능

- 섬유류 수입쿼터 폐지(GATT 체제 편입) 과도기간 중 갑작스런 수입량 증가로 인해 수입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손상 또는 심각한 손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발동 가능
 - 국별 선별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WTO의 세이프가드 제도와 구별

- ☐ 섬유 수입쿼터 폐지 이행 과정

- WTO의 섬유감시기구(TMB)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 EU, 캐나다 등 주요 섬유 수입국들의 섬유쿼터 폐지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그 동안 수입쿼터가 폐지된 섬유류는 대부분 저부가가치 제품이
며, 전체 대상 품목의 51%의 쿼터를 폐지하도록 규정된 3단계 계
획이 종료되어도 섬유 수입쿼터는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
 - 현재 미국은 전체 대상 757개 품목 중 701개 품목의 쿼터를 운영
중이며, EU는 219개 품목 중 164개 품목, 캐나다는 295개 품목
중 241개 품목의 쿼터를 여전히 운용
- 그러나 WTO의 상품교역 이사회, 섬유감시기구 등의 적극적인 섬
유 교역자유화 촉진 요구와 다자간 협상에 기초한 섬유 수출국 및
이해 당사국의 요구에 의해 일정 과도기를 거쳐 섬유 수입쿼터는
전면 철폐될 전망
- 섬유 수입쿼터의 전면 폐지는 국가별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특히 중국, 인도,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
최대 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 (Textile World 2004.1월호)
- 특히 중국은 쿼터 폐지 이후 최대 25%의 비용절감효과를 누릴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대 섬유 수입국인 미국 내 섬유업체가 긴장
 - World Bank는 쿼터 폐지 후 2010년까지 중국의 대미 섬유 수출
은 400억불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현재 중국의 대미 섬유수출은 65억불 규모
- 이에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 협상 시 2005년부터 4년간 중국산
섬유류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기로 합의
 - 중국산 knit fabrics, bras, dressing gown 등 주요 4대 품목의 대
미 수입증가율이 연간 7.5%로 고정될 수 있도록 물량 조절
 - 중국의 전체 대미 섬유수출 증가율을 연간 4.7% 고정시키는 결과
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다른 한편, 미국 섬유업체는 쿼터 폐지에 따른 자국 산업 보조정
책(세제인하, 보조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음.

Ⅱ. 주요 섬유수출국의 대응방안

1. 중국

□ 섬유 수입쿼터 폐지는 중국에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국은 쿼터 폐지가 일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2005년도 섬유 수입쿼터 폐지 후 중국의 방직품 수출은 150% 증가하고, 시장점유율도 15%에서 25%로 늘어날 전망

○ 특히 주요제품의 대미 수출은 300-500% 늘어날 것으로 추산

□ 기업 차원에서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방안 강구

○ 기술개발

- 중국 섬유산업의 최대 약점은 선진국 대비 낮은 기술수준인 것으로 진단
- R&D 투자 확대, 기술개발 등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로 경쟁국과의 차별화 유도

○ 중국 섬유산업 구조조정의 기회

- 첨단기술과 선진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산업 구조 고도화 추진
- 미국 섬유업계의 대중국 투자유치로 미국과의 통상마찰 해소 방안 모색

○ 세계 섬유산업의 재편 예상

- 홍콩, 대만 등 생산시설의 중국이전 가속화 예상
- 섬유 수입쿼터 폐지로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등은 경쟁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

□ 대형 유통업체의 대중국 직접 아웃소싱 증가

- 월마트, 카르푸 등 세계 유명 유통기업들이 대중국 직접 소싱 전략 확대

□ 중국 내 우리 투자기업 반사이익 누릴 듯

- 중국의 섬유수출 증가에 따라 우리의 대중 원부자재 수출 증가

2. 인도

□ 인도 정부는 섬유 수입쿼터 폐지에 대비 지난 2000년부터 “국가 섬유정책”을 추진 중

① 기술향상 기금

- 섬유 생산설비 현대화 및 기술향상을 위해 총 50억불 기금 지원

② 의류수출 파크 설립

- 유망 지역 선정 대규모 섬유 생산공단 설립, 각종 인프라 제공

③ 섬유거점지역 인프라 개발계획 추진

- 섬유거점지역의 인프라 시설 현대화를 위해 자금 지원

④ 섬유 관련 각종 세금 지속 인하

- 섬유기계류 도입 시 소비세 면제, 관세 인하

□ 인도 섬유업계의 두드러진 대응 움직임은 저코스트에 기초한 생산 설비의 대형화, 제품 생산의 수직적 통합(생산제품 범위의 확대)를 통한 코스트 인하로 요약되고 있음.

① 생산설비 확대

- Alok Industries, Zodiac, Welspun, Arvinder 등 인도의 대표적 섬유생산업체들은 안(yarn)에서부터 의류 메이커에 이르기까지 생산설비 확대 중

② 생산제품 범위 확대

- 인도 최대 직물 메이커인 Raymond 사는 최근 약 19백만불을 투자, 의류 제조설비 확충
- Banswara Syntex 사는 기존 직물 공급처인 미국 Levis의 요청에 따라 의류 공급 생산라인 설치 준비 중

□ 인도는 쿼터 폐지 이후에도 원자재 조달에서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제반 여건에서 중국에 비해 열위인 것으로 나타남.

○ 대규모 메이커 및 생산시설 부족, 생산기술 낙후, 노동생산성 열위 등

□ 향후 섬유 수입쿼터 폐지 후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최우선 공급국이 될 것으로 전망

○ 해외 메이커들의 인도 내 생산기지 설립 움직임

- Walmart, JC Penny 등이 인도산 의류 구매 확대 계획
- 걸프 지역의 30여개사가 인도의 섬유수출 파크 등지에 생산기지 설치 추진 중

○ 세계적 바이어들의 직접 조달 움직임 확대

- 의류산업 부문의 외국인 투자 허용 → 인도 내 직접 구매 오피스 설치 가능

3. 태국

□ 태국 섬유산업의 경쟁력은 낮은 기술수준과 높은 임금으로 경쟁국 대비 열악한 것으로 평가

○ 대만, 인도, 홍콩 등은 태국의 낮은 임금을 목적으로 투자 → 기술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중국, 인도, 스리랑카 등 경쟁국 대비 높은 인건비

○ 태국 정부는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디자인 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실효성이 없는 상태

□ 태국 정부의 섬유산업 육성 주요 정책

① 태국 섬유산업 현황 파악

② 방콕의 패션도시 육성 : 기존 OEM 수출 방식을 지양하고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OBM(Own Brand Manufacturing)을 통해 방콕을 패션 허브로 육성

③ 선진국과의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 미국, 호주 등과의 FTA 체결로 경쟁국 대비 우위 선점

□ 기업들은 주변 동남아 국가보다 가격경쟁력이 열세를 보임에 따라 자체 디자인 및 봉제 등 품질 우선정책 추진

□ 섬유 수입쿼터 폐지는 태국 섬유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끼칠 것으로 분석

○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미약

○ 원부자재의 높은 수입의존도

4. 홍콩

☐ 홍콩의 섬유 수출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의류수출국에 원부자재로 공급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섬유류의 대아시아 수출은 전체 섬유 수출의 87%

☐ 홍콩의 대미, 대EU 의류수출은 전체 의류수출의 60%

☐ 홍콩 정부의 섬유 수입쿼터 폐지 대응방안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경쟁국 대비 디자인, 품질관리, 기술개발, 판매 및 마케팅 우위 유지
- 기술인력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장려

○ CEPA(홍콩-중국 간 경제협력강화협정) 체결 (2003.6.29)

- 의류 36개 품목, 섬유 50개 홍콩 원산지 품목이 대중국 수출 시 수입관세 면제 혜택
- 섬유, 의류부문의 홍콩 공장생산 체제 유지 및 추가 외국인투자 유치 가능

☐ 홍콩 관련 기업의 섬유 수입쿼터 폐지 대응방안

○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특화

- 특수 및 고급 제품 위주
- 독일, 일본 등으로부터 최신설비를 수입, 품질 경쟁력 강화

○ 생산기지의 탄력적 운영

- 섬유 수입쿼터 폐지 후 미국의 대중국 무역장벽이 추가로 신설될 것에 대비, 생산기지를 중국, 홍콩, 마카오 3개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여 탄력적 운영

- 멕시코, 카리브 연안국 생산기지 활용 → NAFTA지역 수출 확대

□ 섬유 수입쿼터 폐지 후에도 홍콩의 섬유 및 의류산업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홍콩의 생산시설 대부분이 80-90년대에 이미 중국으로 이전

- 홍콩은 제품소싱 및 디자인 설계 중심

○ 특히 홍콩의 대중국 재수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시장 장악을 우려한 미국과 EU의 보호주의 조치에 촉각

□ 경쟁국과의 경쟁은 더욱 격화

○ 경쟁국에 비해 많은 쿼터를 보유, 시장을 보장받아 왔던 홍콩은 섬유 교역이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쟁에 제한효과

- 특히 의류제품은 대미, 대EU 수출 시 한국, 대만, 파키스탄 등과의 경쟁이 크게 격화될 것으로 분석

□ 중국은 2008년까지 특별 세이프가드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CEPA 관세 면제 효과를 활용, 생산기지를 홍콩으로 많이 이전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아울러 중국 원산지 제품의 재수출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5. 베트남

□ 베트남 정부는 섬유 교역 자유화와 관련, 그 혜택이 WTO 회원국에게 돌아간다고 판단, WTO 가입에 노력을 경주

○ 베트남 정부는 2005년 가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전문가들은 2006년경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

□ 베트남 정부의 섬유산업 육성정책

○ 국영기업인 VINATEX의 해외 지사화 사업 : 베트남 국내 기업들이 동사의 프랑스, 독일, 미국 지사를 해외지사로 활용

○ 기술혁신 및 제품 다양화 사업에 20억불 배정

○ 시장다변화 전략 : 대미 수출 편중 지양

□ 주요 섬유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

○ 단순 임가공 형태에서 탈피, 원자재 공급,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등 생산 공정 수준 향상 시도

○ 비쿼터 시장 개척 활발 : 대만, 남아프리카, 중동 등

□ 섬유 수입쿼터 폐지는 단기적으로 베트남 섬유산업에 불이익 초래

○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경쟁국 대비 기술수준 미약

○ WTO 회원국에 부여되는 무역자유화 효과 차단

○ 미국 시장 위주의 수출 구조로 수출 다변화 미미

6. 터키

- ☐ 섬유쿼터 폐지 후 터키 섬유 수출업체는 주력 시장인 EU 시장은 물론이고 미국시장에서 저가의 중국제품에 밀려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
 - 일부 업체는 섬유 수입쿼터 폐지의 연장을 건의하고 있음.
- ☐ 섬유 수입쿼터 폐지와 관련, 터키 정부는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에 앞서 중국 저가 제품의 국내시장 잠식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려
 - 중국을 겨냥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규제, 세관통관 강화 등을 통해 중국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입규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 ☐ 동 사안이 터키 섬유업체의 향후 사활이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
- ☐ 관련 수출기업들은 중국과의 FTA 체결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중국의 생산기지화 → 대미수출 유리
 - 터키의 수준높은 디자인 기술 중국에 전수
 - 터키는 유럽시장 중심의 섬유·의류 수출 경험에 따라 서구형 디자인과 소비패턴에 우위를 가지고 있음.
- ☐ 중국과의 경쟁이 가장 큰 관건
 - 중국제품의 국내시장 잠식 우려
 - 터키-EU 간 관세동맹으로 터키는 대EU 수출 시 무관세 수출이 이루어져 섬유쿼터 폐지로 인한 추가 이득은 없는 상태
 - 반면, 중국은 대EU 수출에 큰 장애물을 제거한 셈.

7. 필리핀

- ☐ 필리핀 섬유업체는 섬유 수입쿼터 폐지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를 내리기에 앞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 그러나 중국, 방글라데시 등에 수출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 고조
 - 쿼터 폐지 후를 대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던 기업들은 오히려 경쟁국 및 경쟁사에 비해 우월한 입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
- ☐ 필리핀 정부는 생산성 향상 독려, 시장개척활동 지원, 수출촉진 지원, 금융 지원 등 각종 정책을 통해 섬유 수출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
- ☐ 일부 섬유 기업들은 쿼터 폐지로 미국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내수시장 공략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 디자인 및 품질향상, 가격경쟁력 강화 전략 강구
 - ISO 등 국제인증 획득으로 수출시장에서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경쟁국과의 차별성 제고에 노력
- ☐ 섬유쿼터 배정기구 폐쇄 준비 돌입
 - 1979년 필리핀의 의류직물 수출촉진을 위해 설립된 의류수출청이 2004.12.31일까지만 운영됨.
 - 2005.1월부터 일부 기능은 무역산업부로 흡수

<별 첨> 국별 섬유 수입쿼터 폐지 대처현황

1. 중국

가. 중국의 對美, 對EU 섬유수출 규모

<중국의 對美 섬유수출 규모>

(단위 : 천불, %)

HS code	품목명	2001		2002		2003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50	실크	18,442	-13.0	19,269	4.5	27,237	41.4
51	양모, 섬수모, 조수모,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2,901	-58.1	2,022	-30.3	4,303	112.8
52	면	120,739	-14.9	118,693	-1.7	128,974	8.7
53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11,573	-42.0	12,865	11.2	13,175	2.4
54	인조 장섬유	16,967	-38.2	22,674	33.6	27,205	20.0
55	인조 단섬유	64,370	-12.5	76,149	18.3	76,135	-0.0
56	웨딩, 펠트, 부직포, 특수사, 끈, 코 오디지, 케이블과 그 제품	5,514	-41.4	9,951	80.5	20,117	102.2
57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	208,837	1.7	249,469	19.5	274,755	10.1
58	특수직물, 터프트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31,152	-8.9	62,589	100.9	72,600	16.0
59	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23,822	11.1	37,542	57.2	42,709	14.0
60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2,992	-3.3	20,604	588.7	39,742	92.9
61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와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	1,241,823	8.3	1,416,263	14.1	1,835,641	29.6
62	의류와 그 부속품	2,135,113	-2.5	2,306,303	8.0	2,855,950	23.8
63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니트, 중고 의류, 중고 방직용 섬유제품, 낚마	684,083	4.2	1,073,574	56.9	1,775,364	65.4

자료원 : KOTIS 중국통계

<중국의 對EU 섬유수출 규모>

(단위 : 백만불, %)

HS code	품목명	2001		2002		2003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50	실크	167,905,037	-0.2	145,383,674	-0.2	52,674,962	-1.8
51	양모, 섬수모, 조수모, 마 모사 및 이들의 직물	209,238,406	-0.2	252,074,551	0.2	287,682,504	0.1
52	면	117,075,166	0.4	128,641,229	0.1	137,176,694	0.1
53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 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 물	9,809,177	-0.5	14,248,592	0.3	21,392,317	0.3
54	인조 장섬유	324,205,512	0.4	430,232,714	0.2	583,998,061	0.3
55	인조 단섬유	74,861,634	-0.2	111,167,208	0.3	139,404,152	0.2
56	웨딩, 펠트, 부직포, 특수 사, 끈, 코오디지, 케이블 과 그 제품	30,117,770	-0.1	28,346,606	-0.1	38,034,550	0.3
57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	94,679,653	0.0	94,504,509	0.0	113,772,754	0.2
58	특수직물, 터프트 섬유직 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40,200,864	0.0	129,405,314	0.7	158,187,323	0.2
59	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 공업용 의 방직용 섬유제품	44,199,473	0.0	45,038,464	0.0	49,350,080	0.1
60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 물의 의류와 그 부품	15,839,416	0.1	30,751,072	0.5	44,297,076	0.3
61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 스와 뜨개질 편물의 것 은 제외)	992,704,579	0.0	1,182,327,318	0.2	16,201,100,732	0.9
62	의류와 그 부속품	1,791,280,271	0.0	2,265,818,448	0.2	3,168,227,021	0.3
63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니트, 중고의류, 중고 방 직용 섬유제품, 넘마	584,551,581	0.1	646,689,102	0.1	951,410,683	0.3

자료원 : KOTIS 중국통계

나. 2005년 섬유수입쿼터 완전폐지에 대한 준비상황 및 대응

1) 정부차원

- ☐ 중국정부는 섬유수입쿼터 완전폐지 관련 미국 주도로 일부국가가 섬유쿼터 폐지에 대한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금년 3월 美 방직품제조업협회는 7월 1일전까지 회의를 소집하여 방직품 쿼터폐지 시한을 2007년말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며 멕시코, 이탈리아, 벨기에, 호주 등 관련협회의 쿼터연장 성명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표시하고 있음.
 - 국가간 협상에서 WTO의 룰에 부합하는 자유무역 시장논리를 내세워 쿼터폐지가 일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특별세이프가드제도의 실시 가능성을 두고 미국, EU 등 주요 국가별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음.
- ☐ 이미 각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수출확대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으며 순조로운 쿼터폐지를 위하여 정부간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지난해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 조정정책의 발표에 따라 금년부터 방직품 수출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률은 과거 17%에서 13%로 하락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주로 수출 환경개선에 집중되고 있음.

2) 기업차원

- ☐ 중국의 방직품 관련업체는 수입쿼터 완전폐지 이후 수출환경 개에 따라 수출확대에 높은 기대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EU를 들

러싼 시장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기업과 제품의 취약점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음

- 특히 △국가간 시장경쟁 심화 △국내 투자과열에 따른 과잉생산 촉발 △선진국 대비 낮은 기술수준 △R&D 능력부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점으로 남아 있어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
- 중국산 방직제품의 기술, 설비 및 산업구조는 선진국대비 낮은 수준으로 특히 디자인 방면에 있어서 취약점을 보이고 있어 산업구조 조정과 함께 선진국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R&D 방면의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수출용 의류 원단의 국산화율은 63%에 달하고 있으나 고부가제품의 경우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저부가가치 제품의 경우 원가경쟁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생산비용이 늘어날 경우 경쟁우위 요인이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
- 미국시장의 진출확대를 위하여 카리비안 연안지역과 북미자유무역지대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비관세 장벽을 우회하는 한편 신규 시장개척 루트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방법도 고려
- 미국의 방직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내 투자유치를 확대하여 미국업체와의 마찰을 감소시키고 선진국의 첨단기술과 선진관리 기법을 도입하여 전반적인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다. 향후 전망

1) 섬유수입쿼터 폐지에 대한 평가

- ☐ 중국정부는 그 동안 방직품 쿼터제한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연간 수출손실액이 연간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05년 쿼터제도 폐지에 따라 중국이 가장 큰 수혜국으로 부상할 것을 낙관하고 있음.
- 중국은 2005년 쿼터제도 폐지 이후 중국의 방직품 수출은 15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계 방직품 시장점유율도 15%에서 25%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인조섬유, 면제품 및 의류제품 등 주요제품의 대미수출은 1년 내 300-50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쿼터폐지 이후 시장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하락세와 수출업체 증가로 양적인 측면에서 正(+)의 효과가 예상되나 개별업체의 수익측면에서는 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음.
- ☐ 중국은 방직품 쿼터폐지 이후 교역환경 개선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내산업 발전과 수출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방직품은 중국의 주요 수출제품의 하나로 중국 전체 수출의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통적 지주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2) 경쟁국과의 관계변화

- 중국산 제품의 쿼터폐지에 따라 중국의 생산여건 뿐만 아니라 대외수출 환경의 개선으로 당분간 홍콩과 대만을 비롯한 인근 국가의 생산시설의 중국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수출 제한지역 국가의 섬유기업과 자본, 브랜드 및 기술 등 방면에 있어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있어 지난 2년간 계약기준 투자액은 81억 달러에 달하였고 외자기업의 수출비중도 약 35%전후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은 자국 섬유제품에 대한 자유무역이 실현될 경우 중국의 전 세계 수출량은 2000년 1,660억 달러에서 2008년 2,48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부 제한요인이 있다고 해도 2008년 2,0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카리비안 연해국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필리핀, 캄푸치아 등 경쟁력이 부족한 국가의 방직공업은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방직공업의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3) 향후 對美, 對EU 수출 전망

- 중국의 對美, 對EU 수출은 수입쿼터 폐지에 따라 당분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산 방직제품의 對美, 對EU 시장점유율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과 유럽의 방직업 관련 협회는 중국산 방직품 수입에 따른 자국산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월마트, 까르푸 등 전세계 대형 유통기업은 중국시장 내 제품소싱 비율을 높여가고 있음.
- 중국산 제품의 품질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제품도 다양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부가가치 제품을 제외하고 물량 뿐만 아니라 시장범위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4) 우리나라 섬유업계에의 시사점

□ 섬유제품 쿼터제도의 폐지에 따라 제3국 시장에서의 우리의 시장 점유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중국내 우리투자기업의 경우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대외수출 물량의 상당부분이 가공무역과 외자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기업의 중국내 진출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을 우리의 미국과 EU 시장 개척기지로 활용할 수 있음.

□ 한국과 중국의 수출은 동행관계를 보이고 있어 중국의 섬유제품 수출증가에 따라 우리의 대중수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음.

○ 고부가가치 제품의 경우 원부자재를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자국내 원부자재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중국시장 수출확대의 여지가 남아있음.

- 화섬 원자재 및 관련 분야 기술수준 낙후로 원자재의 5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고급 의류 시장 성장에 따라 외국산 직물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중국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뚜렷하게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육성하는 한편 사양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혹은 중국 등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의 이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중국 수출증가에 따라 소요되는 화학섬유 등 수입용 원부자재

수출 확대와 고품질 소재개발 지속 추진하는 한편 중국보다 앞선 디자인 및 염색 등을 이용하여 중국시장과 제3국 시장 공략 추진

- 일류브랜드 상품개발을 통한 자체 브랜드 수출 확대 및 장기적으로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로열티 및 유통부문을 통하여 중국과의 비교우위 분야 구축이 필요

2. 인도

가. 인도의 대미/대EU 섬유수출 규모

1) 인도의 섬유산업 개요

- 인도의 섬유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의 14%, 총수출의 약 25-30%, 고용 3천5백만명으로 총고용의 28%를 차지하는 중요산업
- 섬유사 생산 600만톤으로 세계 전체생산의 12%를 차지하며, 원면 생산 세계 3위국, 실크 생산 세계 1위, 인조 섬유사에서는 세계 5위를 차지

<인도의 섬유 생산 현황>

품목	단위	97-98	98-99	99-00	00-01	01-02	2002-03 (추정)
원면(Cotton)	10만 bale	158.00	165.00	156.00	140.00	158.00	136.00
인조섬유	백만Kg	708.00	782.00	835.00	904	834	914
원모(Wool)	백만Kg	46.33	48.33	46.50	47.00	47.00	47.00
원견(Silk)	백만Kg	15.24	15.54	15.21	15.86	17.35	16.21

* 주 : 1bale=170Kg, 자료원 : Ministry of Textile

2) 인도의 대미/대EU 주요품목별 섬유 수출

□ 인도의 섬유 수출에서 약 50% 정도는 의류(편물 의류 및 기타 의류)가 차지하며, 다음으로 면(사, 직물 및 의류) 제품이 20%, 그 밖에 인조 필라멘트(filament) 및 스테이플 파이버(staple fibres)가 10%등으로 구성

○ 국별로는 전체 수출에서 EU가 30%(38억불), 미국이 20%(25억불)를 차지하여 EU와 미국이 전체 수출의 50%를 차지

<인도의 주요 품목별 대EU, 대미 섬유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대상국	HS코드	주요 제품	2000-01	2001-02	2002-03
EU	52	면	401.47	359.37	405.5
	54	인조 필라멘트	136.97	102.73	106.32
	55	인조 스테이플 파이버	132.56	111.66	144.52
	61	의류(편물제)	639.46	768.6	1048.93
	62	의류(편물제 이외)	1111.4	1006.97	1149.03
	계		2421.86	2349.33	2854.3
미국	52	면	118.87	84.14	106.84
	54	인조 필라멘트	13.84	13.06	26.78
	55	인조 스테이플 파이버	11.51	11.37	24.14
	61	의류(편물제)	470.95	407.16	520.9
	62	의류(편물제 이외)	1378.56	1057.44	1211.38
	계		1993.73	1573.17	1890.04
세계 전체	52	면	2412.17	2000.84	2208.1
	54	인조 필라멘트	513.87	549.99	703.55
	55	인조 스테이플 파이버	483.38	445.1	608.99
	61	의류(편물제)	1789.8	1870.36	2392.85
	62	의류(편물제 이외)	3796.67	3154.23	3360.48
	계		8995.89	8020.52	9273.97

자료원 : 인도 상공부 품목별 수출입 통계

나. 2005년 섬유수입쿼터 폐지에 따른 인도의 대응

1) 정부 차원의 대응

□ 2005년 섬유 쿼타가 폐지될 경우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최대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도는 수년전부터 쿼타 폐지에 따른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 이를 위해 지난 2000년 11월 ‘국가 섬유정책(National Textile Policy)’을 수립하여 섬유 쿼타 폐지에 따라 섬유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도 정부의 주요 섬유산업 지원 정책

- ‘기술향상기금(TUFS : Technology Upgrade Fund Scheme)’ 설치

- 섬유 생산설비 현대화 및 기술 향상을 위해 1999.4.1일부터 2004.3월말까지 총 50억불의 기금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5% 금융이자 지원
- 22명으로 구성된 ‘정부 부처간 조정위원회(inter-Ministrial Steering Committee)’를 설치, 기술권고위원회 및 업종 단체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해 기금의 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검토
- 2002년 11월까지 총 1,970건이 신청되어 이 가운데 1,734건 /5,786크로르(약 12억불)가 허가되어, 4,107크로르(8.7억불)가 실제 집행됨

- ‘의류 수출 파크(Apparel Park for Exports)’ 설립(2002.3월 시행)

- 각 주별로 유망 지역을 선정하여 대규모의 섬유 생산공단을 설립, 각종 산업 인프라 제공

- 현재까지 전국 9개주의 ‘의류 수출 파크’ 허가
- (사례1) AP주의 하이데라바드 국제공항 인근지역인 Maheswaram에 660만불을 투자하여 200에이커의 섬유 수출공단을 설치중으로 금년 6월말 완공 예정
- (사례2) AP주의 Gundiapochampalli 지역에 170에이커의 공단 설치, 이미 분양을 완료, 총 32개사가 입주하여 8개사는 이미 제품을 생산 및 수출중에 있음
- ‘섬유거점지역 인프라 개발계획(TCIDS: Textile Centre Infrastructure Development Scheme)’ 추진
 - 전국 섬유 거점도시의 인프라 시설 현대화를 위해 자금 지원
 - 현재 AP주의 Karimnagar와 Haryana주의 Panipat 지역 등 2개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가 승인됨
- 섬유관련 각종 세금 지속 인하
 - ‘자동 shuttleless loom’ 등 섬유기계류 도입시 소비세(excise duty) 면제, 생산성 향상 지원
 - 특정 섬유 가공기계류에 대한 관세를 당초 25%에서 10%로 인하
 - 중소 면사 제조업체에 대한 소비세 면제, 가공 직물 및 의류에 대한 소비세를 기존의 16%에서 12%로 인하 등

2) 업계의 대응

□ 쿼타 폐지에 따른 인도 섬유 메이커들의 준비는 크게 ①생산설비 확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 추구, ②생산 제품의 범위 확대 등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음

○ 생산 설비 확대 사례

- Raymond, Zodiac, Welspun, Arvinder 등 양(yarn)에서부터 의

류 메이커에 이르기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중

- Arvinder(의류 메이커) : 방갈로 공장의 생산능력을 기존의 두배 수준인 연산 4.8백만벌 규모로 확대(기 완료)
- Alok Industries(뭄바이 소재 직물 제조업체) : 2.7백만불을 투자하여 편직물 생산 능력을 연산 31백만미터로 확장중
- Zodiac Clothing(의류 메이커) : 셔츠 생산 능력을 연산 5-6백만 벌로 최근 확대

○ 생산 제품범위 확대 사례

- Raymond(인도의 최대 직물 메이커의 하나) : 약 19백만불을 투자하여 방갈로에 정장 의류 및 바지 제조 설비를 설치 중

* “우리는 기존에 미국과 유럽의 구매업체 직물을 공급해 왔으나, 쿼타 폐지이후 의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의 거래관계를 활용하여 제품(의류)을 공급할 기회가 생기고 있다”

(Mr.PK. Bhandari, Deputy Group President of Raymond)

- Banswara Syntex(직물 메이커) : Levis에 오랫동안 직물을 공급해 왔으며, 최근 Levis가 의류를 함께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의류 생산라인 설치 준비 중

* “직물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의류를 생산할 경우 원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의류 제조 경험이 없어 초기에는 월 5만벌 정도의 케파로 시작하여 점차 의류 케파를 확대할 계획이다”

(Mr.Rakesh Mehra, Director of Banswara Syntex)

다. 향후 전망

1) 섬유 쿼타 폐지에 대한 평가

□ 인도는 섬유의 원자재 조달에서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코스트 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쿼타 폐지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혜택을 입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쿼타 폐지를 중장기적인 섬유수출 확대의 발판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음.

□ KPMG가 비교 분석한 인도 섬유산업의 강점과 약점

○ 강점

① 풍부한 저임 숙련 노동력 : KPMG가 주요 섬유생산국의 시간당 노동임금을 비교한 결과 인도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과 함께 가장 저임국으로 평가되어 중국보다 임금이 싼 것으로 나타남

② 원자재 조달의 용이성 : 인도는 면사, 합성사, 직물, 의류 등 모든 형태의 섬유 원자재를 로컬시장에서 조달 가능함에 따라 의류 등 완제품 생산의 lead time을 줄일 수 있음

* 예컨대 면사의 경우 인도는 세계 면화 생산의 12%를 차지하여 중국(25%), 미국(21%)에 이어 세계 3위

③ 내수시장의 급성장 및 무한한 성장 잠재성 : 인도의 1인당 섬유 소비지수는 2.8로 세계전체 평균(6.8)은 물론 중국(5.5)의 절반 수준에 불과, 소득 증가와 함께 무한한 성장 잠재력 보유

○ 약점

① 생산 설비의 영세성/후진성 : 인도의 섬유 생산설비는 동력직

기(power loom) 63%, 수동직기(hand loom) 14% 등으로 후진적 설비 구조 유지, 세계적 바이어들의 요구에 비해 생산 케파 부족

* KPMG가 각국의 섬유생산 설비에서 'shuttleless loom'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 인도는 3.7%로, 세계 전체평균(30.2%)에는 물론 중국(6.2%)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남

② 낮은 노동 생산성, 높은 원가구조(전력, 금융비용, 세금 등) : 인도의 섬유분야 노동 생산성은 중국, 스리랑카등에 비해 저위, 중국 등에 비해 생산 기반이 취약하여 규모의 경제에서 열위

* INGRES가 의류 분야의 노동 생산성을 비교 조사한 결과 인도를 100으로 할 경우 중국은 187, 태국 162, 한국 162로 나타남

③ 대외경쟁에 부적합한 기존의 산업정책 : 인도는 전통적으로 섬유산업을 대표적 중소기업 업종으로 취급하여 각종 지원을 실시하여 생산설비의 영세화를 초래해 왔고, 역으로 일부 규모있는 기업들은 '기술향상기금(TUF)'을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쿼타 폐지가 인도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Mckinsey 보고서는

○ 쿼타 폐지에 따라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혜택을 입을 것이며,

- 인도의 세계 섬유교역 비중은 현재의 4% 수준에서 2008년까지 6.5%로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

- 인도의 섬유 수출은 구조개혁이 수반될 경우 2013년까지 매년 15- 18%의 고성장이 예상되나, 구조 개혁이 없는 경우 현재의 매년 6% 성장에서 약간 증가한 8%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추정

○ 또한 쿼타 폐지가 각국의 섬유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이 큰 혜택을 받고(clear winners)
- 베트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는 현상을 유지(stayers)하는 반면
-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등 여타국들은 수출 감소를 피하기 위해 경쟁열위 요소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

2) 경쟁국과의 관계 변화

- 많은 보고서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중국이 쿼타 폐지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인도는 쿼타 폐지이후 중국과의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음
- KPMG는 쿼타 폐지이후 중국의 세계 섬유교역 비중은 현재의 15%에서 43%까지 급증할 뿐만 아니라,
- 쿼타 폐지이후 1년 이내에 중국은 대미 수출에서만 420억불을 추가로 수출함으로써 미국시장 점유율이 현재의 9%에서 6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
- 쿼타 폐지이후의 최적 섬유생산 입지 측면에서 인도 또한 원자재 조달에서 완제품 조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제반 여건에서 중국에 비해 열위인 것으로 평가됨
- 중국과 비교하여 인도가 특히 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①대규모 메이커 및 대량생산 설비 부족으로 규모의 경제 열위, ②생산 기술의 낙후, ③(단순 임금 수준이 아닌) 노동 생산성 열위 등이 지적되고 있음
- 다만 ①쿼타 폐지에 따른 일정한 혜택, ②인도가 생산 규모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방직(spinning), 면직물등에 대한 수출기회 증가, ③선진국의 주요 구매업체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달원천을 대부분 복수국가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 ④중국산 섬유류

에 대해 2005~2008년까지 WTO 회원국들이 특별 세이프가드(Special Safeguard)가 보장된다는 점등이 인도에 기회를 제공하는 요인으로 평가됨

3) 향후 대미, 대EU 수출 변화

□ USITC의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쿼타 폐지이후에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최우선 공급국으로 생각하고 있어 경쟁력있는 공급국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해외 메이커들의 인도내 생산기지 설립 움직임

○ 미국의 주요 의류 소매업체 Walmart, JC Penny등이 쿼타 폐지 이후 인도로부터 연간 120억불의 의류를 구매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 연간 수출액이 1-5억불 규모인 걸프지역의 30여사가 인도의 하이데라바드 등 '섬유 수출 파크'를 중심으로 생산기지 설치를 추진중

○ 세계적 바이어들의 직접 조달 움직임 확대 추세

- 인도 정부는 약 2년전부터 기존에 중소기업 업종으로 분류해온 의류 부문에 대해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기존에 에이전트를 통해 제품을 조달해온 세계적 소매업체들이 인도내 직접 구매오피스를 설치하여 직접 조달체제를 강화하고 있음

4) 기타 우리나라 섬유업계에의 시사점

□ 쿼타 폐지는 섬유산업에서 무한경쟁에 의한 최적 입지 생산/조달을 요구하게 되며, 각국은 자국의 경쟁우위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에 주력하고 있음

- 인도의 경우 섬유업계의 두드러진 대응 움직임은 i)저코스트에 기초한 생산 설비의 대형화, ii)제품생산의 수직적 통합(생산제품 범위의 확대)을 통한 코스트 인하로 요약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 케파 및 원가 구조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인조 섬유(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안, 스테이플 파이버 등) 및 합성직물 부문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능성 섬유 등 특수 섬유 부문의 제품개발 및 특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태국

가. 태국의 대EU, 대미 섬유수출 규모

1) 개요

- 2003년도 태국의 섬유산업 수출규모는 54억 7,190만달러로서 총 수출액(802억 3,840만달러)의 약 6.8%를 차지하였음.
- 이러한 수출비중은 매년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 지난 1999년도 수출비중이 8.75%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2%가까이 감소한 수치임.
- 부문별로는 의류 및 악세사리류의 수출액이 30억 216만달러, 직물 및 섬유사가 14억 1,520만달러로 대부분의 수출을 차지하고 있고, 가정용 각종 직물제품과 화학 Filament 및 기타제품이 약 10억 달러임.
- 국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2003년 기준)이 의류 15억 3,600만달러(2002년대비 1.8% 감소)에 달하는 등 총 18억 7,080만 달러에

달했으며, EU지역으로는 의류 6억 4,290만달러, 직물 1억 5,510만 달러로 총 수출액은 10억 1,880만달러였음. 2003년도중 이들 지역으로의 섬유수출액은 전체 섬유수출액 54억 달러의 52.8%인 28억 9,000만달러에 달했음.

<태국의 섬유수출추이>

(단위 : US\$백만, %)

구 분	2001	2002	2003	
			금액	증감율
전체섬유	5,265	5,145	5,472	6.4
-의류, 악세사리	3,160	2,980	3,022	1.4
-직물, 섬유사	1,272	1,270	1,415	11.4
-가정용 직물	150	153	183	18.5
-화학섬유필라멘트	224	247	292	17.9
-자수, Lace	93	95	109	15.7
-그물	54	52	55	4.9
-스카프, 머플러 등	7	7	9	38.1
-기타 직물	305	342	388	13.4
총 수출액	65,183	68,818	80,238	16.6

자료원 : 태국 상무부

2) 연도별 對美, 對 EU 상위 주요수출품목 현황

(HS Code 4자리 기준)

□ HS Code 4자리수 기준, 태국의 최대 섬유수출품목은 여성용 의류임. 2003년 기준, 동제품의 수출실적은 약 4억 2,275만 달러로서, 전체 섬유제품 수출액의 7.7%를 차지하였음. 이어서 남성의류(3억 3,460만달러), 스웨터(3억 748만달러)의 순으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의류 등 섬유제품의 수출이 전체수출을 이끌고 있으나, 중국, 인도 및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경쟁력 열세로 인해

수출은 매년 줄어들거나,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 수출대상국별로는 가격경쟁이 보다 심한 미국으로의 수출이 EU로의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음.

<여성용 의류(HS 6204)>

(단위 : THB백만, %)

구 분	2001	2002	2003	
			금액	증감율
아세안	149	172	220	27.9
EU	2,333	2,301	2,471	7.3
일본	549	585	587	0.3
미국	10,809	10,312	10,869	5.4
전체 수출액	17,313	16,434	16,910	2.9

주 : 환율은 \$1 = THB40임 (이하동일)

자료원 : 태국 상무부 (이하동일)

<남성용 의류(HS 6203)>

(단위 : THB백만, %)

구 분	2001	2002	2003	
			금액	증감율
아세안	355	283	342	20.8
EU	4,154	3,509	3,690	5.1
일본	1,312	814	762	-6.4
미국	6,632	5,369	4,986	-7.1
전체 수출액	17,464	13,696	13,384	-2.2

<저지(스웨터), 가디건(HS 6110)>

(단위 : THB백만, %)

구 분	2001	2002	2003	
			금액	증감율
아세안	144	164	116	-29.3
EU	5,438	5,162	5,432	5.2
일본	248	158	220	39.2
미국	9,681	6,795	5,996	-11.8
전체 수출액	16,213	12,851	12,299	-4.3

<화학섬유(HS 5402)>

(단위 : THB백만, %)

구 분	2001	2002	2003	
			금액	증감율
아세안	1,303	1,196	1,264	5.6
EU	932	899	976	8.6
일본	330	556	784	41.0
미국	582	454	373	-17.8
전체 수출액	7,965	8,312	9,250	11.3

<유아용 의류(HS 6111)>

(단위 : THB백만, %)

구 분	2001	2002	2003	
			금액	증감율
아세안	25	34	32	-5.9
EU	1,800	1,463	1,516	3.6
일본	62	53	46	-13.2
미국	11,508	9,384	6,786	-27.7
전체 수출액	14,190	11,597	9,136	-21.2

<티셔츠, 기타 니트셔츠(HS 6109)>

(단위 : THB백만, %)

구 분	2001	2002	2003	
			금액	증감율
아세안	357	366	488	33.3
EU	2,050	2,114	2,536	19.9
일본	1,354	1,141	1,442	26.4
미국	1,419	1,855	2,184	17.7
전체 수출액	7,523	7,744	8,798	13.6

<남성 및 남아용 니트셔츠(HS 6105)>

(단위 : THB백만, %)

구 분	2001	2002	2003	
			금액	증감율
아세안	261	188	235	25.0
EU	2,053	1,534	1,976	28.8
일본	610	370	324	-12.4
미국	5,687	5,407	4,905	-9.3
전체 수출액	9,493	8,311	8,088	-2.7

<여성용 내의류(HS 6212)>

(단위 : THB백만, %)

구 분	2001	2002	2003	
			금액	증감율
아세안	123	123	152	23.6
EU	2,043	2,128	2,674	25.7
일본	764	568	682	20.0
미국	4,096	4,382	3,413	-22.1
전체 수출액	7,898	8,147	7,819	-4.0

나. 섬유수입쿼터 완전폐지에 따른 해당국의 대비상황

1) 태국의 섬유산업 경쟁력

☐ 낮은 기술수준

- 태국의 섬유산업은 주로 대만, 인도 및 홍콩기업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이들 국가의 기업들은 태국의 낮은 임금을 목적으로 투자한 기업들이 대부분으로 알려지고 있어, 기술수준은 다소 낮은 상황임.
- 또한, 연간 섬유제품의 수출액이 50-60억 달러에 달하고는 있으나, 섬유기계산업의 낙후로 대부분의 관련설비를 수입에 의존하는 등 자체 기술기반은 매우 낙후되어 있음.

☐ 경쟁국 대비 높은 인건비로 인한 경쟁력 열세

- 최근 중국, 인도 및 스리랑카 등 서남아의 섬유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태국의 경우, 섬유수출이 매년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 정부의 지원정책 미비

- 태국정부는 방콕을 패션도시로 육성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별로 없는 상황임. 태국투자청(BOI)에서는 섬유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거나, 디자인 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공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2) 정부차원 대응방안

- 섬유쿼터 철폐와 관련하여, 태국정부는 오래전부터 관련된 사실을 업계에 전파하여 왔으며, 관련업계에 이에 대한 대비를 요청하여 왔으나,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직접 지원하여야 할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대외무역국의 섬유산업 담당자 역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무역관에서 상무부 산하 무역국(Dept. of Foreign Trade)의 섬유산업 지원담당자(Ms. Pawana)를 접촉하여 문의한 결과,
 - 태국정부는 쿼터철폐에 따른 대응책과 관련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업계 지원정책을 아직 마련하지는 못한 상황임.
 - 이와 관련, 쿼터 철폐에 따른 대책 및 지원책을 준비하기 위해 섬유정책담당관이 섬유수출국회의(4월초 인도개최)에 참가하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실정임.
- 태국정부의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정책
 - 태국 섬유제조업협회 및 의류협회를 통한 태국의 섬유산업 장단점 조사(수실 협의회 등실시) -> 국제 통상 협상시 자료활용
 - 방콕의 패션도시 육성정책 :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태국의 섬유산업이 주로 OEM방식으로 수출하던 것을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OBM(Own Brand Manufacturing)방식으로 바꾸고, 방콕을 동남아시아 Fashion Hub로 육성키 위한 정책
 - 선진국과의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 미국 및 호주와의

FTA체결을 통한, 경쟁국대비 낮은 가격의 제품수출 도모

3) 기업차원 대응방안

- 대기기업의 경우, 쿼터철폐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무역관에서 접촉한 4명의 바이어 모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대기기업 반응 (가격경쟁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품질우선정책추진) : 스리랑카, 미얀마, 베트남 등 주변 동남아 국가보다 가격경쟁력이 열세를 보임에 따라, 다수의 기업들은 자체 디자인 및 봉제 등에 있어 비교적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수출확대를 도모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접촉자 : 태국 산업연맹의 섬유분과위원장 겸 Thai Oriental Garment Co.의 사장인 Mr. Chvalit Nimlaor씨 // Design Apparel Co. 사 MD Mr. Saran)
- 중소기업 반응 : 일단 부닥쳐 보아야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쿼터가 철폐된 후에도 최소 1-2년간 미국의 바이어가 당장 수입선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하기도 하였음(접촉자 : Asia Thai Product LP.의 M.D. Mr. Chatri 등)

다. 향후전망

- 1) 수입쿼터 폐지에 대한 주재국 정부 및 업계 평가 : 가격경쟁력 열세로 인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2) 대 선진국 수출전망
 - 대체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다수의 기업들의 동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규시장 진출확대를 통해 수출선 다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 수출이 급격하

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Dept. of Foreign Trade 전망 인용)

3) 경쟁국과의 관계변화

- ☐ 태국의 경우, 섬유산업 전체적으로 50-60억 달러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관산업(화학, 자연섬유 및 섬유기계 등)의 발달미비로 인해 이들 원재료 및 자본재의 수입의존율이 매우 높은 상황임.
- ☐ 이에 따라, 태국의 주요 경쟁국인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 중국 등이 면사 등 원재료의 자국 우선공급정책을 실시하면서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자동차 및 IT산업과 비교시 정부의 열악한 지원정책, 경쟁국대비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해 섬유산업의 전망이 다소 어두운 편임.
- ☐ 미국 및 EU의 섬유쿼터 철폐는 태국의 섬유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임.

(자료원 :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섬유정책과, 태국 산업연맹(FTI) 섬유분과위, 섬유제조업협회, 개별기업(Asia Thai Product LP., Design Appreal Co., Thai Oriental Garment Co., Wetco International Co., Diethelm Trading Co. 등))

4. 홍콩

가. 홍콩의 대미, 대 EU 섬유수출규모

1) 홍콩의 섬유(textile)수출현황

- 홍콩 섬유산업은 2003년 6월 기준 1,134개의 제조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고 비용문제로 인해 국내 생산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중국산 섬유류의 재수출은 전체 수출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2003년간 두자리 수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홍콩의 섬유, 직물류 수출현황>

(단위: 백만불, %)

수 출	2001		2002		2003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국내수출	1,050	-11	980	-7	756	-23
재수출	11,161	-9	11,441	3	12,311	8
- 중국산	6,229	-5	6,948	12	7,854	13
전체수출	12,211	-9	12,422	2	13,067	5

자료원 : 홍콩 통계청

- 홍콩 섬유생산은 주로 아시아 의류수출국의 원료로 공급되고 있음.
(아시아지역 수출이 전체섬유수출의 약87% 차지)

< 홍콩의 주요 국가별 섬유 수출현황 >

(단위 : 백만불, %)

	2001			2002			2003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중국	8,336	68.3	-7	8,371	67.4	0.4	8,880	68.0	6
베트남	54	0.4	-22	197	1.6	266	298	2.3	51
미국	466	3.8	-11	412	3.3	-12	336	2.6	-19
방글라 데시	277	2.3	-10	287	2.3	3	293	2.2	2
필리핀	268	2.2	-13	278	2.2	4	276	2.1	-1
캄보 디아	180	1.5	-12	244	2.0	35	270	2.1	11
인도네 시아	252	2.1	-8	247	2.0	-2	243	1.9	-2
스리 랑카	249	2.0	-8	243	2.0	-3	249	1.9	3
태국	235	1.9	-9	245	2.0	4	228	1.7	-7
마카오	154	1.3	-22	132	1.1	-15	120	0.9	-9

자료원 : 홍콩 통계청

< 홍콩의 품목별 섬유 수출현황 >

(단위 : 백만불, %)

SITC	품목	2001			2002			2003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65	섬유사, 직물, 직물제품	12,211	100	-9.1	12,422	100	1.7	13,067	100	5.2
651	섬유사	3,105	25.4	2.6	3,168	25.5	2	3,591	27.5	13.4
652	면직물	2,825	23.1	-9.8	3,042	24.5	7.7	3,076	23.5	1.1
653	인조직물	1,815	14.9	-17.5	1,578	12.7	-13.1	1,509	11.5	-4.4
654	기타직물	502	4.1	-19.8	494	4.0	-1.5	535	4.1	8.2
655	편직 또는 뜨개질직물	2,160	17.7	-8.8	2,380	19.2	10.2	2,545	19.5	6.9
656	털, 레이스, 자수용, 트리밍 및 기타 소비품	496	4.1	-11.8	541	4.4	9.2	619	4.7	14.3
657	특수사, 직물 및 관련제품	766	6.3	-15.1	746	6.0	-2.7	746	5.7	0
658	섬유물질의 구성제품	500	4.1	-11.7	432	3.5	-13.5	407	3.1	-5.8
659	마루덮개등	43	0.4	2.1	40	0.3	-6	39	0.3	-2.4

자료원 : 홍콩 통계청

- 홍콩의 섬유수출은 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바 대미, 대EU 수출비중은 미미한 수준임.

<홍콩의 주요 섬유품목별 대미, 대EU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

		2001			2002			2003		
SITC	국가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65	미국	466	3.8	-11.3	412	3.3	-11.6	336	2.6	-18.6
	EU	206	1.7	-18.9	197	1.6	-4.3	214	1.6	8.2

		2001			2002			2003		
SITC	국가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651	미국	2	0.08	-33.4	2	0	-28.3	2	0.05	5.4
	EU	36	1	-21.6	37	1	5.4	39	1.1	4.1

		2001			2002			2003		
SITC	국가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652	미국	148	5.2	-8.9	118	3.9	-19.9	70	2.3	-41
	EU	24	0.8	11.4	23	0.8	-4.1	24	0.8	5.8

		2001			2002			2003		
SITC	국가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653	미국	2	0.09	-60.4	3	0.2	39.4	2	0.1	-40.7
	EU	6	0.3	-64.4	8	0.5	112.8	7	0.5	-18.7

		2001			2002			2003		
SITC	국가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654	미국	5	1	-48.6	6	1	21.6	6	1	-11.2
	EU	12	2	-24.3	10	2	-14.9	12	2.2	16.5

		2001			2002			2003		
SITC	국가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655	미국	32	1.5	-36.9	25	1	-21.8	18	0.7	-27.2
	EU	5	0.2	-36.7	4	0.2	-19.8	6	0.2	53.3

		2001			2002			2003		
SITC	국가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656	미국	31	6	-25.2	30	5	-5	34	5.6	17.8
	EU	20	4	-30.9	22	4	5.2	25	4	14.9

		2001			2002			2003		
SITC 657	국가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미국	12	2	3.3	10	1	-14	9	1.2	-15.3
	EU	9	1	-10.7	8	1	-10.2	10	1.3	23.5

		2001			2002			2003		
SITC 658	국가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미국	228	45.5	-3.4	211	48.8	-7.3	186	45.8	-11.7
	EU	93	18.6	-12.6	84	19.3	-10.4	89	21.7	5.9

		2001			2002			2003		
SITC 659	국가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미국	6	13.8	13.2	6	15.2	3.4	8	21	34
	EU	2	4.5	-8.7	2	5	4.3	3	8.1	58.1

자료원 : 홍콩 통계청

2) 홍콩의 의류(Clothing) 수출현황

☐ 홍콩의 의류산업은 2003년 3월 기준 1,668개의 제조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약 32,808명임

☐ 2001- 2003년간 의류국내수출은 다소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까지도 전체 의류수출에 있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홍콩의 의류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

수 출	2001		2002		2003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국내수출	9,262	-7	8,338	-10	8,190	-2
재수출	14,181	-1	14,091	-1	14,933	6
- 중국산	12,984	-3	12,632	-3	13,308	5
전체수출	23,442	-3	22,430	-4	23,123	3

자료원 : 홍콩 통계청

☐ 주요 수출국별로 살펴보면, 의류의 대 US, 대EU 수출이 전체수출의 60%를 점유하고 있음.

< 홍콩의 주요 국가별 의류 수출현황 >

(단위 : 백만불, %)

	2001			2002			2003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미국	8,346	35.6	0	8,264	36.8	-1	8,560	37	4
EU	5,915	25.2	-10	5,798	25.9	-2	6,399	27.7	10
영국	2,085	8.9	0	2,190	9.8	5	2,315	10	6
독일	1,295	5.5	-19	1,256	5.6	-3	1,428	6.2	14
화란	610	2.6	-10	544	2.4	-11	564	2.4	4
프랑스	518	2.2	-10	478	2.1	-8	516	2.2	8
스페인	301	1.3	-10	304	1.4	1	395	1.7	30
중국	2,692	11.5	4	2,663	11.9	-1	2,611	11.3	-2
일본	2,047	8.7	1	1,653	7.4	-19	1,686	7.3	2
캐나다	662	2.8	5	634	2.8	-4	639	2.8	1
호주	436	1.9	-13	423	1.9	-3	459	2	8

자료원 : 홍콩 통계청

< 홍콩의 품목별 의류 수출현황 >

(단위 : 백만불, %)

SITC	품목	2001			2002			2003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84	의복제품, 의복부속품	23,442	100	-3.1	22,430	100	-4.3	23,123	100	3.1
-	직물류(Woven)	8,729	37.2	-4	8,354	37.2	-4	8,566	37	2.5
84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코트, 자켓	3,091	13.2	-13	2,653	11.8	-14	2,682	11.6	1
842	여자용 코트, 자켓, 슈트, 브레이저	5,638	24.0	1	5,702	25.4	1	5,884	25.4	3
-	편물류(Knitted)	3,823	16.3	-1	3,775	16.8	-1	3,668	15.8	-2.9
843	남자 또는 소년용의 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	1,025	4.4	-11	959	4.3	-6	912	3.9	-5
844	여자 또는 소녀용의 코트, 케이프, 자켓, 슈트브레이저	2,798	11.9	4	2,816	12.6	1	2,755	11.9	-2
-	의류 악세서리	2,678	11.2	*	2,382	10.6	-9	2,474	10.7	3.9
846	직물제 의복악세서리	1,161	5.0	5	1,011	4.5	-13	1,031	4.5	2
848	의류와 의류부속품 (직물제 제외)	1,467	6.3	-3	1,370	6.1	-7	1,443	6.2	5
845	달리 명시되지 않은 직물제의 의복제품	8,262	35.2	-4	7,918	35.3	-4	8,415	36.4	6

자료원 : 홍콩 통계청

<홍콩의 주요 의류품목별 대미, 대EU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

		2001			2002			2003		
SITC	국가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84	미국	8,436	35.6	0.1	8,264	36.8	-1	8,560	37	3.6
	EU	5,915	25.2	-10	5,798	25.8	-2	6,399	27.7	10.4

		2001			2002			2003		
SITC	국가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841	미국	987	32	-11.3	874	33	-11.5	910	34	4.1
	EU	796	26	-15.7	693	26	-12.9	758	28	9.4

		2001			2002			2003		
SITC	국가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842	미국	2,339	41	-1	2,312	41	-1.2	2,430	41	5.1
	EU	1,479	26	-2.3	1,547	27	4.6	1,741	30	12.5

		2001			2002			2003		
SITC	국가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843	미국	302	29	-12.9	292	30	-3.3	311	34	6.5
	EU	346	34	-12	341	36	-1.6	305	33	-10.5

		2001			2002			2003		
SITC	국가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844	미국	1,529	55	16.5	1,592	57	4.1	1,545	56	-3
	EU	492	18	-17.4	516	18	4.9	564	20	9.3

		2001			2002			2003		
SITC	국가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845	미국	2,441	30	-9.4	2,360	30	-3.3	2,609	31	10.6
	EU	2,296	28	-0.4	2,387	30	4	2,562	30	7.3

		2001			2002			2003		
SITC	국가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846	미국	116	10	6.8	93	9	-19.5	119	12	28.3
	EU	96	8	-18.3	92	9	-4.2	103	10	11.8

		2001			2002			2003		
SITC	국가명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848	미국	733	50	-1.9	665	49	-9.3	688	48	3.4
	EU	310	21	-14.1	298	22	-3.6	312	22	4.7

자료원 : 홍콩 통계청

나. 2005년 섬유수입쿼터 완전폐지에 대한 준비사항 및 대응

1) 정부차원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제고

- 섬유, 의류공장이 홍콩에서 철수하더라도 우수한 품질 및 기술향상을 통해 디자인, 품질관리, 기술개발, 판매, 마케팅 부문에 있어서 우위를 유지한다는 방침.
- 또한 패션, 섬유부문의 고부가가치 기술인력 등을 배양코자 각종 기술인력 배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장려하고 있음. 관련 교육기관으로는 의류업 훈련국, 직업훈련국 산하 홍콩전문교육학원의 의류/방직훈련센터 등이 있음.
- Interstoff Asia/ International Fabric Show등의 각종 섬유 및 의류관련 국제 전시회 지원 및 장려를 통해 아시아 지역 내 마케팅 및 소싱 기지로서의 홍콩의 역할 강조

☐ CEPA(홍콩-중국간 경제협력강화 협정) 체결- 2003년 6월 29일

- 2004년 1월 1일부터 CEPA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273개 업종 중 의류 부문 36개의 홍콩 원산지 제품이 14-21.3%의 관세면세 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며, 섬유부문 50개의 홍콩원산지 제품이 5-18.7%의 관세 면세 혜택을 누리게 되었음
- 이에 따라 2005년 이후에도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의해 쿼터제가 일정부분 유지될 경우 CEPA 체제하에서 섬유, 의류부문의 홍콩 공장생산 일부 가동이 유지 될 것이며, 외국인투자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홍콩공업 무역부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접수한 CEPA하 "홍콩제품 원산지 증명서" 신청 건 총 488건 중 방직/의류업종의 원산지 신청이 172건으로 가장 두드러지고 있음.

2) 기업차원

☐ 생산제품 의 고부가가치화 및 특화

- 특수, 고급 섬유 등을 통해 제품을 특화에 주력하고, 독일, 일본 등으로부터 최신설비를 수입하여 제품 품질의 경쟁력 확보 노력.

☐ 생산기지의 탄력적 운영

- 2005년 섬유수입쿼터 폐지이후 미국의 대 중국 무역장벽이 신설될 것에 대비, 생산기지를 중국, 홍콩, 마카오 3개 지역으로 분산 배치, 탄력성있게 대응할 방침
- 이밖에도 멕시코,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에 생산기지를 이용하여 NAFTA혜택을 통한 미국진출 방안도 강구되고 있음.

다. 향후전망

1) 섬유쿼터 폐지에 대한 평가

☐ 2005년 쿼터 폐지에 따른 공장이전 충격 크지 않을 듯

- 홍콩의 섬유, 의류공장 상당수가 80-90년대 중국으로 이미 대부분 이전되었고, 홍콩은 제품소싱, 디자인설계 등의 중심지가 되고있음.
- 홍콩의 중국으로의 공장이전은 2005년 이전인 현재에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오히려 2005년 섬유/의류 쿼터제 폐지 시, 기존 중국, 동남아 공장 이전한 홍콩업체들이 직접 미국과 EU으로 대량수출이 가능하게 되어 수출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밖에도 2005년이후에는중국 수출수요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홍콩의 대중국 섬유 재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EU의 보호주의적 움직임 촉각

- 미국의 "시장구조 위협" 등을 이유로 2008년까지 일부 쿼터제를 실시할 경우 중국 쿼터제 제한을 받지 않는 홍콩으로 생산설비 일부가 이전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정부 및 관련 기업체들은 미국 및 EU 보호주의적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상당수의 업체들은 2004년 중반기까지 해외동향을 살핀 후에 2005년 이후의 마케팅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음.

2) 경쟁국과의 관계변화

☐ 홍콩 국내 제조 경쟁력 더욱 약화

- 홍콩 내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라 공장이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지로 공장이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의류부문에 있어서홍콩은 섬유 강대국인 한국, 대만보다 더 많은 쿼터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쿼터제 폐지 이후 상당부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08년까지 제한적 쿼터제 실시 시 생산시설의 홍콩이전 가능성

- 미국이 2008년까지 중국에 대해 제한적 쿼터제를 실시할 경우, CEPA로 인해 섬유/의류제품이 중국과의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중국의 공장생산시설 일부가 홍콩으로 재 이전될 가능성이 큼

3) 향후 대미, 대EU 수출전망

□ 국내 의류수출에 있어서는 비교적 타격이 클 듯

- 홍콩 국내수출의 경우 의류부문의 쿼터보유가 한국, 대만보다도 높아 2005년 쿼터제 폐지 시 대미, 대 EU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 2003년 의류 국내수출은 전체의류 수출에서 35% 비중을 지님. 또한 2003년 대미수출에서 홍콩국내수출 비중은 52%, 대 영국 수출은 35%의 비중을 차지함.
- 한편, 섬유수출부문은 중국 및 아시아 지역 수출에 집중되어 있어 2005년 쿼터제 폐지 이후에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중국산 재수출은 지속 증가예상

- 중국산 제품의 재수출은 2001-2003년까지 지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 쿼터제 폐지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홍콩 의류제품의 중국산 재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수출국	2001	2002	2003
미국	3,456	3,691	4,054
영국	1,275	1,380	1,484
독일	730	7,715	878
총 재수출			
- 중국 원산지	12,984	12,632	13,308

자료원 : 홍콩 통계청

4) 기타 우리나라 섬유업체의 시사점

- 중국, 동남아 지역 생산기지의 우회를 통한 대미, 대 EU수출 및 추후 섬유수요가 급증할 중국시장 진출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임.
- 또한 치열해지고 있는 섬유업계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최근 각광 받고 신소재 제품의 기술 개발 및 경쟁력 있는 상품의 특화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밖에도 홍콩과 같이 자체 브랜드 상품개발 및 디자인, 유통 부문에 있어서 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국과의 비교우위 분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베트남

가. 베트남 대미, 대 EU 섬유 (Textiles)수출 규모

1) 최근 3년간의 국가별 수출

(단위 : 백만불, %)

베트남의 최근 3년간 국가별 섬유 수출 수출액 (전체에서의 비중)			
국명	2001	2002	2003
EU	599.0 (30.53)	540.0 (19.63)	600.0 (16.2)
일본	588.0 (30.0)	485.0 (17.63)	500.0 (13.5)
미국	44.6 (2.27)	975.0 (35.4)	2,300.0 (62.2)
합계	1,962.0 (100.0)	2,781.0 (100.0)	3,700.0 (100.0)

자료원 : Vietnam Textile & Apparel Association (VITAS) & Vietnam Investment Review

나. 2005년 섬유 쿼터 폐지에 대한 베트남 정부 준비상황 및 대응

1) 베트남 정부 준비상황 및 대응

□ 베트남 정부의 WTO 가입 노력

- WTO의 섬유 및 의류협정은 WTO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WTO 회원국이 아닌 베트남은 직접적인 해당사항이 없으나, WTO 회원국인 중국 등 경쟁국들의 섬유 및 의류 쿼터 폐지로 인한 상대적인 불이익이 우려
-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베트남이 WTO에 조속히 가입하는 것이며 베트남 정부도 WTO 가입을 위해 노력
 - 많은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은 당초 베트남 정부가 목표로 한 2005년 WTO 가입은 거의 불가능하며, 빠르면 2006년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미국과 EU는 베트남이 아직 대부분의 경제 분야에서 경쟁을 토대로 한 시장 경제제도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WTO 가입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아래 두 가지 주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 ① 베트남의 기본적인 법률 시스템이 WTO 규정에 부합
 - ② 조세개정 및 서비스 시장 개방
- 베트남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많은 정책을 개선
 - 특히 외국인을 차별하는 이중 가격시스템을 폐지하고, 베트남 국영 기업들의 민영화, 행정개혁, 수입관세 산정 시 GATT식 계산

법 채택, 새로운 기업법 공포 준비 등 많은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 중

- 베트남 섬유·의류 협회인 VITAS의 견해에 따르면, 베트남이 2005년에 WTO 회원이 될 수는 없으나, EU와 미국의 대베트남 섬유 수입쿼터가 완전히 폐지되거나 완화될 수도 있다는 희망 피력
- 베트남은 이 문제에 대해 EU와 일부 교섭을 하였으며, 미국과는 몇몇의 비공식적인 진정운동 활동을 편 바 있음.

□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 VINATEX (Vietnam Textile & Garment Corp.)회사의 해외 지사 운영

- 국영 기업인 VINATEX의 해외지사를 베트남 기업들의 해외지사로 이용하는 제도를 도입 하였으나 현실적인 큰 효과는 없음.

□ 베트남 정부는 2000년에서 2010년 까지 베트남의 섬유 & 의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베트남은 기술혁신 및 제품 다양화에 필요한 출자금 US\$ 20억을 배정

- 국내 섬유 및 의류 생산 공장들을 산업공단 지역(동나이성에 위치한Nhon Trach IZ, 빈증성에 있는 Binh An IZ)에 집중
- 이들이 원자재의 현지 생산을 위한 투자 시 대출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

<베트남 수출의류의 국내 원자재 사용량>

(단위 : %)

상 품	국내 원자재 사용비율
Jacket	11.22
Shirt	25.64
Trousers	15.16
Others	24.99

- 국내 투자자의 수를 늘려 국내 의류 수출자들의 비율을 2005년에는 50% 2010년에는 75%정도로 육성 계획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의 2004 후의 textile 산업에 대한 도전과 해법"의 주제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관련기업들에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미국 시장만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호주와 같은 non-quota 시장을 적극 개척할 것을 권장

2) 기업들의 대책 및 준비

- Viet Tien Garment Company
 - Viet Tien Garment Company는 베트남의 가장 큰 의류 수출 기업 중의 하나로 단순 임가공 형태의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의 원자재 공급,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노력을 강화하여 non-quota 시장을 적극 개척
 - 동사는 2004년에 종전 대 미국 수출량의 25% 수준까지 수출물량을 축소할 계획
 - 고품질의 생산품으로 내수 확대 노력
- Phuong Dong Garment Company
 - 활동적 마케팅 추구
 - 고정 고객 유지 노력
 - 16개의 신규 non-quota 고객 발굴
 - 순임가공 생산이 아닌 자체 브랜드 상품을 FOB 형태로 수출하는 물량을 총수입의 51%까지 늘리는 데 집중

☐ Phuoc Long Textile & Garment Company

- FOB 아이템의 비율을 증가 시키고 새로운 non-quota 아이템을 개발하면서, non-quota 시장 개척
- 지금까지, 국내 의류 생산자들은 셔츠, 블라우스, 바지, 스커트, 니트웨어(T-shirts, polo-shirts, pullovers), 자켓, suits와 같은 협소한 몇 가지 품목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non-quota 아이템을 찾아 새로운 아이템으로 전환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설명
- 동사는 non-quota 시장에서는 베트남산 제품의 경쟁력은 중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

☐ Saigon 3 Garment Joint Stock Company

- 수출 시장 점유비율을 적정히 하여 위험을 최소화하여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이 주요 전략
- 주요 수출 시장은 일본, 미국, EU 등이며 2003년, 이 세 시장으로의 수출액 분포는 40:40:20

☐ Binh Minh Garment Joint Stock Company

- 대미 수출을 전체 수출의 30% 정도로 유지하여 쿼타 제도에서 초래되는 불이익을 가능한 피하는 것이 주요 전략
- 대만, 남아프리카, 중동 등 quota-free 시장개척과 제품 다양화가 시급

☐ Thai Tuan Textile Company

- 최근 2년 동안 신규 시장 개척에 역점
- 기술투자로 품질 향상, 제 값 받기에도 노력

다. 향후 전망

1) 섬유 쿼타 폐지에 대한 평가

- ☐ 베트남 국내 생산자들은 쿼타 폐지로 섬유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이 수량제한인 쿼타가 없어지고 나면, 누가 거대시장을 선점하느냐의 치열한 경쟁에서 다른 국가들이 상대하기 힘겨운 국가가 될 것임은 자명
- ☐ 쿼타 폐지가 베트남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도 팽배
 - 대베트남 신규 오더 축소 우려
 - 디자인, 브랜드, 경영 & 설비, 국제 거래 경험 등에서 경쟁력 열위
- ☐ 그러나 중국 등 특정국이 세계 섬유시장을 지배하지 않도록 많은 수입국들이 자국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사이익도 예상
 - 중국이 섬유 무역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 일부 국가는 대중국 쿼타 폐지 중지를 요구하기도 함.

- 베트남 섬유산업이 신용, 품질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

2) 경쟁국과의 관계 변화

- 베트남의 의류제품은 중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과 비교하여 평균 15-20% 정도 우수한 가격 경쟁력 보유
- 저렴한 인건비, 원자재 및 부품의 높은 국내조달 비중이 가격경쟁력의 원인

3) 향후 대미, 대EU 수출전망

□ 대미 수출전망

- 미국의 베트남의 최대 시장으로 지난 2001년 베트남 대미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2%를 정도였던 것이 2003년에는 60% 정도로 급증
- 2003년 기준, 베트남은 중국, 멕시코, 파키스탄, 인도, 캄보디아, 브라질에 이어 7위 대미 의류 수출국
- WTO 비회원국인 베트남은 여타 회원국에 비해 섬유 수입쿼타 폐지에서 불리한 위치가 될 것으로 전망

□ 대EU 수출전망

- EU는 베트남의 전통적인 고객으로써 2002년부터 미국에 이은 2위 수출시장

- 2003.12월 EU는 대베트남 섬유수출 쿼타 증량
 - 평균 증가율은 50%에서 75% 정도이며, 2004년과 비교하여 US\$ 3억 에서 US\$ 4억 까지 증가
- 특히 금년 5월 정식 발효되는 중동구 국가의 EU 가입으로 베트남의 EU 시장 확대

<베트남의 2004/2005년도 섬유 수출 목표>

(단위 : 백만불, %)

연도별 베트남의 섬유 수출 목표 금액 (시장점유율)			
국가별	2003	2004	2005
EU	600.0 (16.2)	700.0 (16.5)	800.0 (17.9)
일본	500.0 (13.5)	550.0 (12.9)	600.0 (13.5)
미국	2,300.0 (62.2)	2,600.0 (61.2)	3,000.0 (67.3)
합계	3,700.0 (100.0)	4,250.0 (100.0)	4,460.0 (100.0)

자료원 : Vietnam Textile & Apparel Association (VITAS) & Vietnam Economic Times

4) 기타 우리나라 섬유업체에의 시사점

-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저가품 생산은 이미 한계에 봉착
- 저가 수출품은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이 경쟁력 우위
- 소재 개발 등 기술, 지식 집약형 제품 개발이 시급
- 특히, 브랜드 육성, 디자인 개발, 신소재 개발, 마케팅 전략 개발 등 후진국형 상품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임.

6. 터키

가. 터키의 對美, 對EU 섬유수출 규모

1) 터키의 지역별 섬유수출 규모

(단위 : 천불)

지역구분	2001	2002	2003	비중('03기준)
미국	1,427,439	1,697,980	1,749,744	11.6%
EU	6,493,431	7,588,946	9,567,416	63.5%
기타국가	2,475,933	2,869,251	3,750,685	24.9%
전체	10,396,803	12,156,177	15,067,845	100%

자료원: 터키통계청

□ 상기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03 기준으로 전체 섬유수출액 중 63.5%가 EU국가로 수출되었으며, 11.6%가 미국으로 수출됨.

○ 이는 EU국가들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터키의 노동력이 풍부하여 최근 터키가 유럽선진국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1996년 EU와 체결한 관세동맹으로 관세가 없어진 것도 원인으로 보임.

2) 터키의 5대 섬유품목별 수출실적

순위	HS Co de	수출액 ('03, 천불)	비중 (전체 수출비, %)	지역별 비중					
				미국	비중 (품목전체 비, %)	EU	비중 (품목전체 비, %)	기타지역	비중 (품목전체 비, %)
1	61	5,723,869	38	720,624	12.6	4,571,361	79.9	431,884	7.5
2	62	3,791,922	25	519,830	13.7	2,698,606	71.2	573,486	15.1
3	63	1,628,288	11	301,999	18.5	1,126,293	69.2	199,997	12.3
4	52	990,600	7	49,654	5.0	2,698	0.3	938,249	94.7
5	55	762,168	5	35,539	4.7	280,330	36.8	446,300	58.6

자료원: 터키통계청

*** HS Code 설명**

- ① 61류 : 의류와 그 부속품(편물에 한함)
- ② 62류 : 의류와 그 부속품(편물 제외)
- ③ 63류 :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냅마
- ④ 52류 : 면
- ⑤ 55류 : 인조스테이플섬유

나. 섬유수입쿼터 완전폐지에 대한 준비상황 및 대응

1) 정부차원

□ 터키 정부는 섬유쿼터가 폐지되면 주력 수출시장인 EU시장은 물론이고 미국시장에서 저가의 중국제품에 밀려 수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무역부장관은 “극동지역에서온 배 한 척이 터키의 공장 하나를 문닫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중국제품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상황임)

○ 그러나 터키정부 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결정된 구체적인 조치는 없으며, 다만 대책을 논의중에 있다고 함. 또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함.

□ 터키 내에는 섬유쿼터의 폐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직물 및 의류 수출업체들과 오히려 기대를 걸고 있는 직물 수입자들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터키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임. 다만, 로비력을 가진 관련단체들이 중국에 대한 섬유쿼터 폐지의 연기를 요청하고 있으며, 터키 정부 또한 암묵적으로 이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섬유수입쿼터 폐지와 관련, 터키정부는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문제보다는 중국 저가제품의 국내시장 잠식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며(왜냐하면 현재 터키는 섬유수입쿼터로 수입량을 통제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임), 중국을 겨냥한 반덤핑 규제, 세이프가드의 발동, 세관통관 강화 등을 통해 중국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입규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 결론적으로 섬유쿼터폐지가 가져올 국내외시장에서의 혼재된 영향력으로 인해 터키정부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 기업차원

□ 지난 3월 4일 “터키 기성복 및 직물 수출자조합 (Turkey Ready-to-wear and Textile Exporters Union)”이 포함된 섬유업계는 미국의 섬유업체와 공동으로 WTO에 중국에 대한 섬유쿼터의 폐지 시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음.

- 이들은 섬유쿼터가 완전 폐지될 경우 중국제품이 세계시장의 50%를 점유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로 인해 터키의 수출,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섬유쿼터의 폐지로 10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직물 및 의류를 직접 제조·수출하는 측과는 달리 수입업자들의 경우는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 쿼터제도 및 반덤핑 제도로 인하여 값싸고 좋은 품질의 외국 제품(주로 직물)의 수입이 자유롭지 못함으로 인해 터키는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확보에 실패하고 있으며, 쿼터제도나 반덤핑제도를 고집하기 보다는 외국의 값싸고 품질좋은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높여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특히, 이들 직물 등 원재료 수입업자들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주장하기도 함. 미국-이스라엘-레바논간 자유무역협정을 예로 들면서 미국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터키는 중국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은 터키가 보유한 패션을 전수받아 양국 모두 득을 보게 될 것이라는 논리임.

□ 결론적으로 수출업체들은 국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을 우려해 쿼터제도 자체를 유지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수입업자들은 자유로운 수입을 통한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어, 기업차원의 반응이 혼재되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관련업계에서 조차 대응책 마련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다. 향후 전망

1) 섬유수입쿼터 폐지에 대한 평가

□ 지금까지 터키는 섬유쿼터제도가 있음으로 인해 국내시장을 중국 제품으로부터 보호하여 왔으며, 해외시장에서는 중국제품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 따라서 섬유쿼터가 폐지되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수출 감소가 예상되며, 국내시장 역시 중국제품의 진출로 시장을 잠식당할 것으로 보임.

□ 근본적인 산업구조의 변화가 없다면 섬유쿼터의 폐지로 터키는 상당한 손실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판단됨.

2) 경쟁국과의 관계변화

□ 터키 최대의 섬유수출시장인 EU시장과 미국시장에서 최대의 경쟁국은 중국이며, 이들 시장에 중국제품이 대량 반입될 경우, 터키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터키는 중국제품과 차별화되는 중고가 섬유제품의 생산 및 수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터키 정부가 터키 섬유업계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조정하여 발전방향을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여겨짐.

3) 향후 對美, 對EU 수출 전망

□ 터키 섬유류 수출의 63.5%가 EU시장으로 수출될 정도로 EU는 터키 최대의 수출시장임. 하지만 터키는 현재 EU와 관세동맹을 체결하고 있어 쿼터없이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으며, EU국가들과의 지리적 근접성 및 유럽취향의 섬유패션을 중국보다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EU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음.

○ 섬유쿼터폐지로 터키가 EU시장으로부터 추가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없는데 반해, 중국은 쿼터의 폐지로 EU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터키의 대EU시장 수출이 상당히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 터키 섬유산업이 고부가가치의 섬유제품 제조에 주력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할 경우 중국과는 차별화된 품질과 가격으로 EU시장 진출을 계속할 것으로 보임.

○ 터키 섬유수출의 11.6%를 차지하는 미국시장의 경우는 중국과 함께 쿼터적용을 받지 않게 되지만 중국제품이 얻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기 때문에 터키의 미국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 기타 우리나라 섬유업계에의 시사점

- 섬유쿼터 폐지로 터키 섬유산업은 일대 기로에 놓인 것으로 보임. 각종 규제를 통해 국내산업 보호에만 신경쓸 경우 가격경쟁력 약화로 해외시장에서 중국제품과의 경쟁이 어려워질 전망이며,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직물수입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내 직물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분명한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 보임. 하지만 가격에서 중국제품과의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패션능력을 앞세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활로를 개척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터키가 EU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시장임을 감안하고, 터키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가져올 새로운 수요의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 또한 급변하는 세계 섬유시장에서 터키와 전략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자료원

- 터키 무역부 관리 전화인터뷰
- 직물 및 의류수출자협회 관계자 전화인터뷰
- 섬유관련제품 수입자협회장 인터뷰
- 직물 수입업체 5개사 인터뷰
- 현지 교포 섬유에이전트 3개사 인터뷰
- 기타 현지 언론 참고

7. 필리핀

가. 필리핀의 대미, 대EU 섬유 수출규모

<필리핀의 대미, 대EU 의류수출 추이>

(단위 : 천불)

PSCC	2001			2002			2003		
	전체	대미	대EU	전체	대미	대EU	전체	대미	대EU
9310201	65,984	46,318	4,412	79,520	49,952	10,823	81,938	54,941	11,056
9310202	32,749	22,387	3,243	32,267	21,700	3,983	29,568	21,857	3,708
9310203	14,625	10,221	2,849	9,714	6,605	1,417	8,339	5,937	1,070
9310205	382,146	320,060	27,869	394,759	323,978	31,326	387,723	315,843	41,744
9310206	361,309	231,573	46,229	368,786	247,175	35,455	321,273	207,570	36,654
9310207	217,731	168,444	30,015	154,395	119,462	22,111	140,337	101,727	26,323
9310209	10,077	2,724	1,078	5,720	2,169	1,606	6,314	1,118	1,323
합계	1,084,621	801,726	118,695	1,045,162	771,040	106,720	975,492	708,994	121,879

자료원 : 필리핀 통계청 및 BETP(수출진흥청)

※ 품목 구분 기준 : 필리핀 상품분류코드 (PSCC CODE)

PSCC code	품목명
9310201 (HS 6212.10)	Brassieres
931.0202	Gloves & mittens of leather
931.0203	Gloves & mittens, other than leather
931.0205	Women's wear
931.0206	Men's wear
931.0207	Children's & infants' wear
931.0209	Other embroidered goods

나. 섬유수입쿼터 완전폐지에 대한 현지 준비상황 및 대응

1) 정부차원

☐ 생산성향상 독려

- 신규 시설투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업원 훈련 참여 독려
정부차원에서 종업원 생산성향상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 2002년부터 2003년말까지 총 3,181명의 종업원이 훈련 프로그램 수료
- 숙련공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로 봉제업장학금 프로그램을 마련, 봉제업계 근로자에 장학금 수여
- 국제 인증 취득 독려. 총 7개사 ISO 인증 획득, 1개사 WRAP (Worldwide Responsible Apparel Program) 인증 획득.
-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업체에 수출쿼터 배정

☐ 시장개척활동 지원

- Big Buyer Program 시장개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미국, 유럽 현지에서 바이어들과 상담 주선. 참가업체들에 수출쿼터 배정.
- Philippine Brand Development Program으로 고유브랜드 육성 독려. 고유브랜드의 동남아 시장 수출 증가에 따라 미국, 유럽에 편중된 수출시장 다변화 모색.

☐ 수출촉진 지원

- 수출용 원자재 수입통관시 모범업체 5개사 선정, Customs

Green Lane 시범 운영으로 통관시간 단축 지원

- 미국과 통상협상 시 쿼터 운영의 탄력적 적용으로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협의
- 웹사이트상에서 쿼터배정 신청체제 구축 및 관련 정보 제공

☐ 금융 지원

- 중소 수출업체에 수출용 원자재나 생산설비 수입, 창고/플랜트 등 구축에 특별기금 마련, 지원

☐ 기타

- 생산원가 인하를 위해 봉제업계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제 적용을 배제시켜주는 방안 검토 중

2) 기업차원

- ☐ 그 동안 쿼터에 주로 의지해온 업체들은 쿼터폐지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여 쿼터폐지로 쿼터시장을 중국에 빼앗길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 쿼터가 폐지되면 쿼터시장을 중국 업체에 내어줘야 할 것으로 보고 내수 판매에 치중하는 업체들도 있음.

- 그러나 기존에 쿼터에 의지하지 않고 수출해온 업체들은 경쟁력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어 쿼터폐지 이후 수출전망에 대해 낙관적 입장.
 - 특히 미국계 투자업체 등은 쿼터폐지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 ☐ 쿼터에 의존해온 업체들로서는 쿼터가 없어지면 외국 바이어의

구미에 맞는 디자인, 품질, 가격 등의 조건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고 특히 디자인과 품질 향상에 골몰하고 있음.

- 또한 ISO인증 획득이 중국산과의 경쟁을 용이하게 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ISO 인증 획득을 준비중인 업체들도 있음.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바이어들에게 자사 이미지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
-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하고 있는 업체들은 동일품목 내에서도 중국제품의 경쟁력이 약한 쪽으로 초점을 맞춤.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노동집약적 제품과 직접 경쟁을 피하고 품질경쟁력이 필요한 제품을 생산.

* 인터뷰 업체 : Gelmart Industries Philippines, Inc., Jenny's Garments, Inc., Cavite Socks Phils., Inc., Manila Glove Mfg., Inc., Manila Bay Hosiery Mills 등

- 기타 : 많은 수의 봉제업체들이 과거 수년간 쿼터 폐지에 대비, 중국 등지로 이미 생산 공장을 이전했음.

3) 쿼터배정기구 폐쇄 준비

- 1979년에 의류직물 수출촉진을 위해 설립된 의류수출청(GTEB; Garments and Textiles Export Board)가 2004년 12월말까지만 운영됨.
- 2005년 1월부터 일부 기능은 무역산업부(DTI)로 흡수되고 나머지는 폐쇄. 무역산업부에 합류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매 근무년 당 2개월의 급여 지급 예정.

다. 향후 전망

1) 섬유수입쿼터 폐지에 대한 평가

□ 정부는 지난해까지의 쿼터 선집행으로 인해 금년에는 수출이 감소될 것이나, UNCTAD측 분석을 인용, 2005년에는 15%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음. 또한 최근의 동남아로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정부나 업계 모두 쿼터폐지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하지 않으며,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2) 경쟁국과의 관계 변화

□ 중소기업 및 그간 쿼터에 의지해온 업체들의 경우 중국과 방글라데시 등에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감 높음.

○ 지난해와 금년초 SARS 발발시 외국 바이어들이 중국시장에 주문하던 물량 일부를 필리핀에 주문한 경우에서와 같이 외국 바이어들이 위험분산 차원에서 적어도 일부 물량은 필리핀에도 주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3) 향후 대미, 대EU 수출 전망

□ 쿼터와 무관하게 수출해온 업체들은 수출이 다소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나, 쿼터에만 의지해 오고 쿼터폐지에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에 시장을 빼앗길 가능성이 커 수출 감소 전망.

4) 기타 우리나라 섬유업계에의 시사점

- ☐ 단순히 저임금과 쿼터에만 의존해온 업체들은 경쟁력이 없어 존속이 어려움.
- ☐ 저임금국에 진출했어도 인건비 절감에 초점을 두지 않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 지속적으로 종업원 교육훈련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온 업체들은 경쟁력이 높아 쿼터폐지 이후에 대해서도 전혀 우려하지 않음.
- ☐ 업계 입장에서는 정책적 보호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